

광주 재개발 등 도시재생 민간에만 맡겨선 '답' 없다

68곳 중 고작 4곳 완료...특별법 제정 정부가 나서야

구도심 노후 주거지역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을 일방적으로 거주 주민과 민간건설업체에 맡기는 기존 도시재생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택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에서 경제성이 낮은 지방도시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건설업체를 찾지 못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데다 이미 착수된 사업도 업체들이 수익성을 의식해 초고층아파트만을 고집하면서 도시 경관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탓이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지정한 정비예정구역 136곳 중 민간이 추진하는 68곳 중 사업이 완료된 곳은 재개발 1곳, 재건축 3곳 등 4곳으로 사업완료비율이 5.9%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 2005년 이후 민간 건설업체를 선정해 공사에 들어간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64곳의

주민들은 최소 3~5년 이상을 현재의 노후 불량주택에서 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광주의 주택보급률이 105%를 넘어서는 등 주택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향후 건설경기가 나아지더라도 사업성이 낮은 광주지역 재개발·재건축 대상지의 사업 착수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시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토规)가 최근 수익 감소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사업을 축소하면서 노후 주거지역은 대책 없이 방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재개발·재건축이 완료된 곳도 민간 건설업체의 경제성만 강조되면서 또 다른 문제점을 낳고 있다. 원래 거주했던 주민들의 재정착 비율이 낮고 25층 이상 고층 아파트가 단독주택지역이나 도시 관문도로에 들어서면서 주민들간 격차 심화, 도시경관 침해

등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은 어떻게든 사업자를 구하려고 충수를 높여 경제성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민간에만 맡겨두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와 부산 등 광역시들이 대도시 도시서민 주거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을 명시하는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전국 6대 광역시들은 최근 협의회를 열고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조용준 조선대 교수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도심 주거지를 민간에만 맡기는 아니라 국가가 직접 도시재생에 나서야 한다"며 "세계 모든 국가에서 도시재생에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며, 현재의 상태를 계속 방치해서는 도심 슬럼화 현상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택배 전쟁

민족의 명절 설을 1주일여 앞둔 24일 밤 광주 광산구 삼암동 우편집중국 직원들이 밀려드는 택배 주문량을 소화하느라 야근작업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꽃시장 과학비즈니스벨트 새 제안 "광주·대전·대구 내륙 삼각벨트로"

강운태 광주시장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광주·대전·대구 등 내륙 도시 삼각벨트로 만들자는 새로운 제안을 내놔 주목된다.

강 시장의 이 같은 제안은 국토개발 축에서 소외된 내륙도시들의 도약을 위해 3개 광역시가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강 시장은 24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 민주당 지도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국가의 먼 미래를 보면 광주에 유치되는 것이 순리"라며 "특정지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년 간 3조5000억여원이 투입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주축 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는 광주에 두고, 그 분원을 대전과 대구에 각각 설치하자는 것이 주내용이다.

강 시장은 "중이온가속기의 경우 진도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적이 없는 지진안전지대 광주와 그 주변이 최적지이며, 산업 측면에서도 첨단과학 단지가 도심에 배치된 광주가 이상적이다"고 덧붙였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해 광주시는 오는 28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유치 설명회를, 다음달 8일에는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국회 포럼을 개최하기로 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

광주서 반도체 전문인력 키운다

市, 솔렌시스(주)등과 협약 교육센터 설립

광주에 비메모리 반도체(정보 저장) 아닌 정보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반도체) 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센터가 설립된다.

광주시는 24일 세계 유수의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한국마이크로칩(주)이 지난해 말 터치패널 등 터치 관련 산업 육성, 로칩 테크놀로지(주), 터치센서 기술을 보유한 광산구 광동산업단지 내 솔렌시스(주)와 비메모리 반도체 개발 전문교육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서 체결에 따라 우선 1단계로 솔렌시스(주)와 한국마이크로칩(주)은 한국폴리텍V 대학에 올 1학기부터 전문교육과를 개설해 반도체 설계전문가 강사, 응용터치센서 및 가전제품 분야 강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는 참여 교육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성적우수자 미국 해외연수 제공, 마이크로칩 대표가 명의의 인력추천 등 취업알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 2단계로 참여기업의 공동투자자로 반도체 전문설계 및 개발교육 센터를 설립해 6개월

과정인 반도체 설계 전문·고급 과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반도체개발 전문교육센터 설립 협약은 솔렌시스(주)와 한국마이크로칩(주)이 지난해 말 터치패널 등 터치 관련 산업 육성, 교육센터 설립 등과 관련한 공동 협약을 체결한 후 광주시와 업무 협의를 거쳐 성사됐다.

광주시는 터치센서 원천기술을 보유한 솔렌시스(주)의 광주공장이 지난해 말 준공한 이후 터치센서 기술 분야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을 통해 관련 전문인력이 양성될 경우 광주시가 터치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터치센서 유망기업인 솔렌시스(주)와 연계된 세계적인 반도체 교육센터를 유치함으로써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양성은 물론 취업으로까지 연계된 맞춤형 투자 유치 활동의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경남도 뚫렸다" 전남 구제역 비상

방역 강화...AI 재확산 대책도 고심

전남도 방역 당국이 또다시 초진장 상태에 빠져들었다. 소강국면에 접어드는가 싶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영암과 보성의 종오리 농장에서 추가로 발병하는 등 장기전 양상에 접어들었다. 경계지역인 전남마져 구제역에 돌리면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경남 김해군 추촌면 양돈 농가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 검사 결과,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구제역은 8개 시·도로 확산하는 등 전국에 창궐하는 모양새다.

전남도는 당장 경남과의 경계 지역인 광안·순천·구례·곡성 등에 마련한 방

역 초소를 한층 강화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내 모든 소(54만9000마리)와 돼지 '종돈'(種豚·10만5000마리)에 대한 예방 백신 접종이 완료됐지만 도내 '모돈'(母豚) 8만6000마리에 대한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접종 뒤 2주가량 걸리는 항체 형성 시기를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구제역 바이러스는 자체 감염 속도의 경우 소가 월등히 빠르지만 다른 가족으로의 전파 및 전염 속도는 돼지가 무려 3000배 가량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차단방역에 실패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한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정부로부터 가

급적 빨리 백신을 공급받아 도내 모든 돼지들에 대한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에 들어가는 한편, 도간 경계를 지나가는 모든 사료·분뇨·가축 운반 차량 등에 대한 특별 관리에 나서고 있다.

기세가 한풀 꺾인듯했던 AI도 다시 발병, 장기간에 걸쳐 있었다.

전남도는 영암군 덕진면과 보성군 노동면 종오리 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1형)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금껏 AI가 발생하지 않았던 보성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병한 것으로,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는 앞서 해당 농장에 대한 AI 양성반응이 나오자 반경 3km 이내의 가금류 13만 4000마리를 땅 속에 매몰 처분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신묘년은 **히딩크 호텔**과 함께 하세요

패키지 이벤트

객실 + 조식(2인) + 사우나(2인) ₩70,000
웨딩 및 돌잔치 50인 이상 가능(매거지할인)
침선 및 각종 세미나 환영.대.중.소 연회장 원배

행사 메뉴: 양식, 한식(전국-평), 뷔페

히딩크관광호텔
예약문의: 062-227-8500 | www.hidinkhotel.com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조이 여행사
JOYTRAVEL

대표전화: (062) 234-322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FAX: (062)234-3141 http://www.joy2000.co.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대표이사 최금환

추운겨울 일본 규슈 온천으로 따뜻하게 보내세요~

★ 북큐슈 야마나미 통나무 펜션 (벃부족탕체험, 구온계관중정)
4일 ₩ 399,000 출발일: 2/8, 11, 13
불포함: 기사&가이드팁(₩20,000)

★ 구중산 스키유 마을 전통료칸 숙박
4일 ₩ 549,000~ 출발일: 2/11, 13, 26
(광주 출.도착. 최소 인원 15명 이상시 출발 합니다.)

★ 설연휴 ★ 일본 온천여행 ₩ 589,000~ 출발일: 2/5

무안←방콕직항 가족과의 여행 안전하고 편리한 무안 직항 편으로

관 광 2011. 1.30 ~ 3.27 출발까지 총 17회!

★ 방콕, 파타야 3박4일 ₩ 799,000~ [출발-목요일]

★ 방콕, 파타야 3박5일 ₩ 849,000~ [출발-일요일]

★ 방콕, 캄보디아(양코르왓) 3박4일 ₩ 899,000~ [출발-목요일]

★ 방콕, 캄보디아(양코르왓) 3박5일 ₩ 949,000~ [출발-일요일]

불포함: 유류할증료(₩68,000), 기사&가이드팁, 캄보디아 비자비용

골 프

★ 무제한 골프 (90홀) 3박4일 ₩ 1,049,000~

★ 무제한 골프 (108홀) 3박5일 ₩ 1,099,000~

★ 방콕, 파타야 골프 (54홀) 3박4일 ₩ 1,099,000~

★ 방콕, 파타야 골프 (54홀) 3박5일 ₩ 1,149,000~

불포함: 유류할증료(₩68,000), 기사&가이드팁, 골프부대경비-골프렌탈비/캐디비, 전통카드/캐디팁

무안←상해 무안에서 떠나는 중국여행~

★ 상해, 황산(취운천), 항주 4일 ₩ 549,000 출발일: 2/14, 16, 28

★ 상해, 장가계, 천문산 4일 ₩ 699,000 출발일: 2/14, 16, 28
불포함: 비자비, 가이드&기사팁(1만~\$30)

제주도 목포출발 윈메리호로 떠나는 제주도 가족여행!

★ 제주도 올레길투어 2박3일 ₩ 129,000~

★ 제주도 관광 2박3일 ₩ 13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팁 10,000원, 광주-목포 수송비